# 무안군, 전남 일자리 창출 '최우수상' 수상

## 지역 경제 활성화 우수상·투자 유치 장려상 등 3개 분야 표창

무안군이 2022 전남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서 3개 분야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전남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무안군은 15일 "최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22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투자 유치 등 3개 분야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에 전남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일자리 창출 최우수상, 지역 경제 활성화 우수상, 투자 유치 장려상 등 모든 분야에서 수상했다. 22개 시·군 중 전 분야 수상 시·군은 무안군과 영광군 뿐이다. 일자리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는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군은 지난 1년간 고용지표·예산, 청년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취약 계층 일자리, 일자리 지원 정량 평가와 우수 일자리 시책,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협치) 협력의 정성 평가로 구성된 총 7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MNU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개소를 통한 스마트팜 제조창업 분야 기반 조성과 인근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2022 전남 서남권 무안군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일자리 전문기관과 정기 간담회를 통한 2023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 등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협치 노력이 주효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평가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고 위축된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통시장 쇼핑환경 변화를 위한 공모사업 선정, 상권 회복 관련 조례 제정,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했다.

장려상을 받은 투자 유치 분야에서는 올해 11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총 투자금액은 3천910억원으로 고용 창출 효과는 534명으로 추산된다. 제조공장·지식정보 기업 8개 사 250억원, 대규모 숙박시설(호텔&리조트) 2개 사 3천120억원, 마지막으로 물류단지(물류창고, 연수원 등) 1개 사 540억원의 협약을 체결했다.

무안군은 최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22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투자유치 등 3개 분야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전남지사 표창을 받았다. 〈무안군 제공〉

김산 군수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군정에 이바지한 군민과 기업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에 올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며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항상 발전하는 무안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해남군의회는 지난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일반 안건 등을 의결하고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해남군의회 제공〉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내년 예산안 의결

## 해남군의회, 제32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해남군의회는 지난 1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각종 조례안·동의안, 2022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안 등 총 36건을 처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3년 예산안, 일반 안건 등 총 11건을 최종 의결했다.

제3차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에 앞서 박종부 의원은 해남군 수의계약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총 2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했으며 5건의 수범사례를 선정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의회 정책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수범사례로 선정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각종 공유재산(시설물) 하자보수 관리 방안 개선 등 13건 지적사항과 수범사례로 미래공동체과의 북일면 작은학교살리기 성공모델 전국 확산, 민원토지과의 원스톱민원처리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등 7건의 지적사항과 농정과의 농업경쟁력 강화로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육성, 축산사업소의 선제적 가축방역으로 청정 해남 만들기에 기여한 점을 수범사례로 선정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세계의 땅끝공원 보완공사 외 4건 13억여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외 6건 21억여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8천368억원과 특별회계 352억원으로 최종 8천720억원을 수정 의결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해남군으로부터 2022년산 배추 수급 동향 및 가격 안정 대책과 절임배추 관련 긴급 현안 보고가 있었으며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폐기 및 시장격리 방안, 절임배추 생산 농가 전수조사 등 해남 배추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행정이 농가의 길라잡이가 돼줄 것을 요청했다.

김석순 의장은 "한 달 남짓한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많은 안건 심사에 수고해준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2023년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군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한국섬진흥원, 日이도센터와 협력 강화

## '섬의 날' 행사 화답 방문…TFT 구축 등 추진

한국섬진흥원이 일본이도센터와 국내·외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한국섬진흥원은 15일 "최근 도쿄 소재 일본이도센터를 방문해 국제교류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한국섬진흥원의 첫 해외 교류이자 이도센터가 '섬의 날'(8월 8일) 행사 참여에 따른 화답으로 이뤄졌다.

이도센터 미키 쓰요시 조사연구부장과 사에키 나오키 조사계장이 '제3회 섬의 날' 행사에 참여해 '한국섬포럼 국제학술대회' 발표자와 '한섬원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서 주목받았다.

일본이도센터는 1966년 설립된 섬 전문 연구기관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외딴섬 '낙도'(落島)에 관한 다양한 연구, 홍보·각종 진흥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2013년 공익재단법인으로 변경됐다.

국제교류간담회에는 오동호 원장을 비롯한 한국섬진흥원 관계자,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박민식 소장, 일본이도센터 코지마 아이노스케 전무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섬진흥원과 일본이도센터는 간담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협력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건다. 교류 활성화를 위한 TFT를 구축하고 정례세미나 개최와 섬 관련 국제행사 초청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본이도센터와 일본 섬 주민의 방한도 계획돼 있다. 한국섬진흥원은 세계의 섬 교류 허브 역할로, 국내 섬 지자체와 일본 섬 지자체를 서로 연결해 우수사례 등을 공유,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양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발간자료를 지속적으로 번역, 교환키로 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국립나주박물관, 30만번째 관람객 환영 행사

## 2013년 개관 이래 연간 최대 관람객 달성

국립나주박물관은 15일 "2013년 11월 22일 개관 이래 처음으로 한해 관람객 30만명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거둬 30만번째 방문하는 관람객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환영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30만번째로 입장한 관람객은 영암 금정면에서 온 김장춘씨 부부로 부부간의 나들이를 위해 박물관을 찾았다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사진〉

김장춘씨는 "우연히 30만번째 관람객이 되는 영광을 얻게 돼 기쁘며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다시 찾고 싶고 국립나주박물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은화수 국립나주박물관장은 이날 30만번째 관람객으로 선정된 김장춘씨에게 행사 기념으로 30만원 온누리 상품권과 꽃목걸이를 증정했고, 30만번째 이후 방문 관람객 100명에게도 기프트콘(커피 쿠폰) 1만원을 증정했다.

자연 속 열린 문화공간과 스마트 박물관을 지향하고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첨단 기능 신기술 융합 콘텐츠 체험실 운영, 인공지능(AI) 전시 안내 로봇 운영, 어린이박물관 개관 운영, '고대 영산강 사람과 동물' 특별전 개최, 박물관 주변 대규모 꽃단지 조성, 마한문화축제 개최 등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나주=정종환 기자

## 조도파출소 출장운전면허시험 호응

진도경찰서 조도파출소가 전남운전면허시험장과 협조해 자동차운전면허 출장학과시험을 실시, 조도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조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는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진도군보건소, 조도면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주민들이 필기시험을 치렀다.

앞서 이달 1일에는 조도보건지소에서 진도군보건소의 협조로 응시자를 위해 출장 신체검사를 했다.

필기시험에는 15명이 접수해 7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송모(19) 학생은 "주민들을 위해 운전면허시험과 신체검사를 조도에서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도파출소 이인회 경위는 2015년부터 이번까지 13회에 걸쳐 조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장운전면허 시험을 추진, 140명을 합격시키는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무면허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진도=박세권 기자


장성토지 매매 (분양)

▶ 장성댐 5분 ( 광주에서 20분 )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공기최고 (축사없음) , 소나무 숲

▶ 장성댐 , 등산로 (남동향)

100평,150평,200평,700평 (분할 가능)

010-6670-9800

경매교육 [ 기초반 ]

※ 경매 실전 교육반 (10명)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북구 두암동 ( 상가주택 )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 )2층 ▶ 감정가 5억1,600만→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 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북구운암동 (아파트)벽산블루▶감정가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010-2614-9801